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영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영계에도 깊이 들어가고, 육계에서도 깊은 ‘영계의 삶’을 살게 된다.
2. 알고 보면 모든 만물들이 귀한 보물이듯이, 알고 보면 세상은 ‘계시의 세계’다.
3. 계시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었으니 집중해 보면서 날마다, 때때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통해 혹은 ‘꿈’이나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라.
4. 사람이 배우고자 하면 삶 속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
5. 사람이 ‘부지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다.
6. <정신>을 ‘계시’에 집중하며 살면,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깨닫게 되는 계시들이 너무 많다.
7. <계시의 목적, 깨닫게 하는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자기를 위해 계시해 주기 위함’이다.
8.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항

상 사랑하며 잊지 않으면, 계시해 주신다.

9.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을 해 준다. 말이 그 사람의 계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은 ‘만물’이나 ‘꿈’으로, ‘지혜’로 깨닫게 하며 계시해 주신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정신을 집중하면 ‘계시’가 바로 온다. 극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해도 그러하다.